



순창향교 전통혼례 자료사진.

순창향교 자유로운 공간으로 탈바꿈

전통놀이 · 전통혼례 · 문화유적 답사 체험공간으로 거듭

조선시대 교육과 제례공간으로 엄숙한 분위기였던 순창향교가 전통놀이와 전통혼례, 문화유적 답사 체험공간으로 거듭나면서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순창군이 후원하고, 순창향교가 주관하는 2018년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조선시대 선비들, 순창향교에 모였네!' 프로그램이 순창향교 명륜당 일원에서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청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금까지 굳게 닫힌 폐쇄적 공간으로 인식되던 향교와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하고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

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전북도는 순창향교를 비롯하여 도내 9곳을 선정했으며, 그 중 순창군은 국비를 포함해 2,600만원을 확보하고, 3개의 소주제로 진행했다. 먼저 '향교에서 즐기자! 전통놀이!'는 2016년부터 진행된 전통놀이 체험으로 순창의 전통놀이 전문지도사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전통놀이의 맛과 흥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학생에 이르는 체험학습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및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두 번째 '향교에서의 백년해도! 전통혼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거나, 결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혼례 체험을 하고자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지난 5월 다문화가정 2쌍이 혼례를 치렀으며, 오는 8일에는 군민 중 결혼 30주년을 맞은 부부 1쌍이 전통혼례를 올리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선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는 선비의 일상생활과 문화유적을 직접 접해 볼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관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경남 하동, 산청 지역의 청학동과 동의보감촌을 답사하여 전통문화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올해 순창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두루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본질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동시에 재미와 흥미가 있는, 사람과 이야기가 가득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사랑의 크리스마스' 와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정읍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1일 정읍예술회관 대강당서

정읍시립합창단 제64회 정기 연주회가 오는 11일 저녁 7시 30분부터 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무료로 공연한다.

이번 연주회는 이일규 지휘자와 38명의 합창단원들을 비롯하여 실력이 뛰어난 국내 성악전공 외부 초청 공연팀이 특별출연하여 대중가요, 가곡, 외국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초청 공연팀으로는 2015년에 창단하여 국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명의 남성 성악가로 구성된 남성보컬그룹인 'sing joy 앙상블'과 현재 전문 성악가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소프라노 이미성 씨가 출연하며, 관주시립합창단원 소프라노 윤은주 씨가 진행을 맡는다.

'사랑의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인 러브, 장글렐 등 감미로운 크리스마스 노래를 시작으로 연주회 서막을 장식하게 된다.

특히, 옛사랑, o sole mio,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등 대중에게 친숙한 노래 일곡을 편곡해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깊어가는 겨울밤 시민들에게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어느 해 보다 성공적인 연주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연주회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관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립합창단은 1985년도에 설립된 이후 올해까지 매년 정기연주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연주회, 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서비스 등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친근한 합창단으로서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삼례, 다시 봄!' 공연사진.

'삼례, 다시 봄!' 관객 마음 흔들었다

쌀 수탈 역사 녹여낸 소리연극... 고산·이서 공연서 박수갈채

쌀 수탈의 역사와 농민들의 애환을 담은 소리연극 '삼례, 다시 봄!' 공연이 성료 됐다.

완주군은 지난 3일과 5일 고산행정복지센터 공연장과 이서 전기안전공사 새울리플에서 소리연극 '삼례, 다시 봄!' 공연을 열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삼례, 다시 봄!'은 일제강점기 삼례지역을 배경으로 쌀 수탈의 역사와 농민들의 애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소리연극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전주시민 등 타 지역 관객이 많이 찾았으며, 관람객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한 관람객은 "지역의 역사를 토대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 녹여내고,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다"며 "완주군을 떠나 전국적인 브랜드 공연으로도 손색이 없다"며 엄지를 치켜 올렸다.

이 공연은 완주군이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사업에 선정돼 국비지원을 받아 지난 2017년 완주문화재단과 협력해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무대에 올리는 공연이다.

완주군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내년도도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명실상부한 브랜드 공연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논개님의 고장 장수에서 그윽한 농묵의 향기 날려

논개골 서예 · 문인화 협회전 오늘까지

제6회 논개골 서예·문인화 협회전이 장수군 한누리전당 1층 전시실에서 오늘까지 개최된다. 장수군 생활문화예술동회 지원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장수군 서예동회회원 장목회와 청목회, 문인화동회 회원의 작품 40여 점이 전시된다.

송병석 협회장은 "전통 문화인 서예와 문인

화를 생활예술과 연계시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지역민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꾸준히 전시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농촌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민 관람 및 공유를 위해 한누리전당 전시관을 운영해오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